

Japan Weekly Digest

2011. 8. 20. ~ 8. 26.

☐ 금주의 이슈

- 무디스, 일본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
- 엔高대책으로 엔高대응기금(1,000억달러) 창설
- 간 총리 퇴임의사 공식표명, 미해결 경제정책 과제 적지 않아

☐ 일본기업전략

- 일본 상사들, 줄이어 신흥국에서 항만사업 참여
- 히타치·GE 합작투자기업과 캐나다 주정부가 소형원자로 공동 개발
- 산업공동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들의 대응, 속수무책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아시아거점화 입지 추진사업 공모
- 방사선오염 제거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

☐ 보고서 리뷰

- 『엔高의 경제학:디플레와 엔高의 순환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



대한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무디스, 일본국채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

- 8월 24일 일본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a2에서 중국과 같은 Aa3로 한 단계 하향조정, 경제성장력의 약화 전망으로 재정적자 축소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주된 이유임
- 무디스사는 일본정부의 채무수준이 선진국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데다 지진재해로 경기회복의 부진과 함께 디플레마저 악화되고 있어, 2012년도 국채 발행규모를 40조엔 이하로 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.
- 무디스에 의한 하향조정은 2002년 5월 이후 9년만이며 앞으로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는, 국채가 일본 국내투자가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안정적이라는 평가
- 이같은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하여, 노다 재무상은 일본국채에 대한 신인도에는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, 채권시장의 반응도 한정적
- 다만 세계경기 불안전망으로 금리저하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의 금리도 저하되기 쉽기는 하나, 재정재건의 부진→일본 국내투자가에 의한 국채 소화 구도의 균열 → 일본의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평가

□ 엔高대책으로 엔高대응기금(1,000억달러) 창설

< 목적 >

- 급격한 엔高진행에 대응, 민간 엔화자금의 외화 전환(円投) 촉진에 의한 외환 시장 안정
- 장기적인 국부 증대

< 기본 골격 >

- 외환특별회계의 달러자금을 국제협력은행을 경유하여 활용
- 공적부문에 의한 리스크머니 공급이나 정책유자에 의해 ①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매수나 ②자원·에너지 확보 등을 촉진, 이를 민간부문의 円投의 마중물로 활용

< 금액·금리 >

- 정책융자의 재원으로 외환특별회계로부터 국제협력은행에 대하여 최대 1,000억 달러를 6개월 LIBOR금리로 융자
- 국제협력은행으로부터 총 1,500억엔 규모를 출자

< 기간 >

- 1년간 한시적 운용

< 구체적인 방안 >

- ① M&A촉진
 - 국내 은행에 크레디트라인 공여
 - 산업혁신기구와의 연대
- ② 자원·에너지 확보·개발 촉진
- ③ 중소기업의 수출 등에 지원

□ 간 총리 퇴임의사 공식표명, 미해결 경제정책 과제 적지 않아

- 간 나오토 총리는 8월 26일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퇴진의사를 표명함. 간 총리는 29일 선출되는 신임 당대표에게 총리자리를 넘기고 물러남.
- 간 총리의 퇴진의사 공식표명과 관련하여, 그동안 퇴진조건으로 제시했던 적자국채발행법과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이 이날 통과됨.
- 간 총리는 작년 6월 총리 취임 이후 1년 3개월만에 물러나지만 최근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, 주요 경제정책면에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차기정권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적지않게 남겨놓음.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일본 상사들, 줄이어 신흥국에서 항만사업 참여

- 일본의 대형 상사가 잇따라 해외 항만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있음. 미츠이물산은 대만의 대형 물류회사와 제휴, 태국의 항만시설운영회사에 49%를 출자함. 이토추상사는 베트남에서 대형 항만개발사업에 착수, 앞으로 수요증가가 기대되는 기간 인프라 정비나 운영사업에 참여
- 미츠이 물산은 특히 신흥국에서 항만운업을 하는 기업들에 출자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연간 컨테이너 취급량을 늘려 세계 15권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.
 - 최근에는 대만의 종합물류회사인 에버그린그룹의 항만터미널 운영회사 ECTT에 49% 출자,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의 가전, 자동차 부품메이커들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기능을 제공
 - 싱가포르에서도 대형 항만회사인 포틱인터내셔널에 7월말부터 TOB(주식의 공개매수)를 실시, 9월 상순에 완료하여 산하에 둘 예정
- 이토추 상사는 베트남의 대형 컨테이너터미널 건설이나 운영사업에 참여, 일본 유센, 미츠이 상선, 베트남의 대형해운회사와 공동으로 300억엔을 투입, 201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. 연간 컨테이너 취급능력은 약 85만TEU. 가전, 정밀기기, 의류잡화 등을 취급
- 여타 상사들의 경우에는 마루베니가 태국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대형 항만터미널 ESCO를 운영하는 외에, 브라질이나 미국의 곡물용 항만터미널 운영회사에 출자하고 있음. 소우지츠(双日)도 20% 출자한 베트남의 대형 제품회사를 통하여 작년말 베트남에서 곡물전용항을 정비
- 일본의 주요 상사들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수요나 화물수요의 증가를 예상하여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

□ 히타치·GE 합작투자기업과 캐나다 주정부가 소형원자로 공동개발

- 히타치제작소와 미국 GE사의 합작투자기업, 히타치GE뉴크리어에너지 등 관련 3개사가 캐나다 주정부와 소형원자로를 공동개발한다고 발표. 출력이 중대형 원자로의 1/2이하인 소형원자로는 안정성이 높고 건설·운영비용도 저렴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이후 안정성을 중시한 소형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.
- 히타치GE뉴크리어에너지와 캐나다 주정부는 앞으로 5년간 각각 500만캐나다 달러(약 4억엔)를 투자, 투자대상은 우라늄회수기술과 방사선 기술도 포함 2023년~2025년에 실용화를 목표.

□ 산업공동화에 대한 일본 중소기업들의 대응, 속수무책

- 가뜰이나 지진재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사상 최고수준의 엔고와 전력부족으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. 지진발생 이전부터 기업들의 해외이전 경향이 보였으나 지진재해로 인해 본격화되고 있음.
- 엔화환율이 달러당 90엔전후였던 작년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기업들과의 가격경쟁에서 고전을 면치못했으나 최근 엔고하에서는 가격경쟁은 커녕 그야말로 해외생산도피를 하고 있는 가운데,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대다수는 폐업 일보직전
 - 특히 제조업에서는 대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하청형태로 공급해오던 중소메이커들이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.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아시아거점화 입지 추진사업 공모

- 주관부서 : 무역경제협력국
- 사업개요
 -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통괄거점 또는 연구개발 거점 등 고부가가치거점의 일본내 입지를 지원, 일본의 강점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기능의 집적을 촉진시킴으로써 일본내 고부가가치 거점을 유지·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
- 사업내용
 - 통괄거점 또는 연구개발거점의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글로벌한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줌. 다만, 일본내 거점의 이전·통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대상 : 민간사업자 등
- 공모기간 : 2011.8.31 ~ 2011.10.31

□ 방사선오염 제거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

- 경제산업성(원자력재해대책 본부)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부터 5개월이 경과했으나 많은 주민들이 방사능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방사능 오염 제거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
- ① 연간 추정 피폭량이 20밀리시벨트를 초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방사능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연간 추정 피폭량을 20밀리시벨트 이하로 낮춤.
 - ② 연간 추정 피폭량이 20밀리시벨트를 하회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, 주민의 협력을 얻어 방사능오염 제거를 실시하여 연간 추정 피폭량을 1밀리시벨트로 접근
 - ③ 특히, 아동(학교, 공원 등)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오염 제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의 연간 추정 피폭량을 1밀리시벨트 이하로 접근

◆ 보고서 리뷰

『엔高的 경제학 : 디플레와 엔高的 순환』

제일생명경제연구소, 8월20일

□ 발라사(Bela Ballasa)-사뮤엘슨(Paul Samuelson) 효과

- 발라사-사뮤엘슨 효과에서는 국가간 구매력차이에 의한 물가차이를 무역가능한 재화가격의 차이로 치환하는 경우, 환율은 양국간 무역재의 상대가격을 반영
- 이를 일본의 무역에 적용하면, 무역수지균형상태에서 일본의 수출경쟁력 강화 → 일본의 무역흑자 → 엔高 → 무역수지의 재균형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일본 산업의 생산효율화가 결국은 엔高를 유발, 또는 엔高的 주범은 일본산업의 생산효율화에 있다는 것임.

□ 내외가격차는 장기적으로 수정됨

-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달러당 80엔대의 엔高하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, 일본수출기업들은 초엔高하에서도 이익을 내고 있음. 수출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비투자를 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초엔高하에서도 채산을 맞출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
-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내외 임금격차가 해소됨. 엔高에 의해 경쟁력이 없는 수출기업, 수입기업(유통기업) 모두에서 실업이 발생하여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이 악화됨에 따라, 간접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도 노동비용이 저하되지 않을 수 없게 됨.
- 일본은 1980년대 전반부터 무역흑자 확대로 1985년 플라자합의에 의해 환율이 엔高수준으로 조정되었으나 이 시기가 이후 발생한 디플레의 기점이 되고, 2000년 전후부터 임금디플레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발라사-사뮤엘슨 효과가 주목되기에 이름.

□ 글로벌화와 일본의 구조적인 엔高체질

- 최근 일본의 디플레가 심각한 이유는 글로벌화에 따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 증가가 간접적으로 임금디플레를 유발하는 한편, 더욱이 일본기업의 해외생산 증가·국내공장 폐쇄 → 산업공동화가 일본의 임금디플레를 촉진
- 더욱이 자동차 등 경쟁력 있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서플라이체인을 통하여 인건비절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발 일본의 임금비용이 저하.
- 결론적으로 글로벌화에 의한 노동비용 저하→일본 제조업의 비용 절감에 기여 → 수출경쟁력 강화 → 엔高압력으로 이어짐. 일본경제 전체로는 엔高→노동비용 절감→엔高라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작용, 바로 이것이 발라사-사무엘슨 효과에 의한 엔高-디플레 순환메커니즘임.

□ 시사점

- 환율결정에는 실물적 요인/구매력 평가 요인 외에 금융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, 특히 최근 일본의 엔高배경에 금융적 측면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, 발라사-사무엘슨 효과에 의한 엔高-디플레 순환메커니즘 설명은 일정부분 타당함.

*출처 : 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kuma/pdf/k_1108g.pdf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- (1) 『엔高의 경제학 : 디플레와 엔高의 순환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8월20일

*출처: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kuma/pdf/k_1108g.pdf

- (2) 『화폐와 성장기대 : 물가변동 메커니즘』 일본은행금융연구소, 8월23일

*출처:<http://www.imes.boj.or.jp/research/papers/japanese/kk30-3-5.pdf>

- (3) 『TPP 연구회 보고서』 케논 글로벌 전략연구소, 8월24일

*출처:http://www.canon-igs.org/research_papers/macroeconomics/20110823_994.html

- (4) 『2011년판 후생백서』 일본 후생노동성, 8월24일

*출처:<http://www.mhlw.go.jp/wp/hakusyo/kousei/11-2/kousei-data/pdfNFindex.html>

- (5) 『버블/디플레기 일본경제와 경제정책 연구』 경제사회종합연구소, 8월26일

*출처:http://www.esri.go.jp/jp/archive/e_rnote/e_rnote020/e_rnote019.pdf

- (6) 『동일본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교훈』 교토은행, 8월26일

*출처:http://www.kyotobank.co.jp/houjin/report/pdf/201108_02.pdf